

『자본론』 제3권 -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제3권 제4편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 상인자본(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으로 전환

제16장 상품거래자본

제17장 상업이윤

제18장 상업자본의 회전. 가격

제19장 화폐거래자본

제20장 상인자본의 역사적 고찰

- 우리는 제3권 제1편과 제2편에서 잉여가치가 이윤이라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과 자본가들의 경쟁을 통해 평균이윤율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제3편에서는 그렇게 형성된 이윤율 자체가 장기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주된 분석 대상은 가치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부문인 산업자본이었으며, 이것은 이제까지 다루었던 주제들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본가가 일차적으로 취득하는 이윤은 온전히 그의 몫으로 되지 않고 지배계급의 여러 분파들에게 상업이윤, 이자, 지대 등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자본론』 제3권의 제4, 제5, 제6편은 “자본이 사회의 표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취하는 여러 형태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생산영역에서 창조된 이윤(잉여가치)이 각각 상업자본가, 이자받는 자본가(대부자본가), 토지소유자 계급(지주)에게 분할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제16장 상품거래자본

- 제4편은 그중에서도 상인자본을 다룬다. 먼저 상인자본은 상품거래자본(=상업자본)과 화폐거래자본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자본론』 제2권 제1편에서 검토했던 자본의 순환($M-C \cdots P \cdots C'-M'$) 중에서 유통영역에 속하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 각각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자본으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인자본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잉여가치(따라서 이윤)를 창조하지 않는 '비생산적 자본'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독립함으로써 산업자본가는 자신이 직접 유통영역까지 담당했을 경우보다 더 적은 양의 자본으로 더 빠르게 구매와 판매, 지불, 결제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그만큼 직접적 생산에 투하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증대하게 된다.

1. 상인자본 또는 거래자본은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이라는 두 형태 또는 아종으로 분할된다. (p. 337) ... 사회의 총자본을 고찰하면, 그것의 일부는 항상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으며 화폐로 전환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는 화폐로서 시장에 있으며 상품으로 전환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자본은 항상 이런 이행운동, 이런 탈바꿈과정 중에 있다. 유통과정에 있는 자본의 이런 기능이 특수한 자본의 특수한 기능으로 독립하고 분업에 의해 특수한 종류의 자본가의 기능으로 고정된다면, 상품자본은 상품거래자본 또는 상업자본으로 된다. (pp. 337-8)

2. 산업자본은 유통자본((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의 기능에서는 생산자본의 기능과 구별된다. 유통자본과 생산자본은 동일한 자본이 두 개로 분리된 다른 존재형태들이다.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는 항상 유통자본의 형태로 시장에 존재하며 이 탈바꿈과정 중에 있다. (p. 338) ... 상업자본은 이런 유통자본의 일부가 전환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p. 339) ... 상품거래자본은 생산자의 상품자본—즉 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시장에서 상품자본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품자본—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이 기능이 생산자 자신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제는 특수한 종류의 자본가인 상인의 전문적인 업무로 등장하며 특수한 자본투하분야로 독립했을 뿐이다. (p. 341)

3. 상인이 화폐자본을 투하함으로써 상품자본은 상품거래자본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종류의 자본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화폐자본이 자본으로서 증식되고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오로지 그 화폐자본이 상품자본의 탈바꿈[상품자본의 상품자본으로서의 기능, 즉 상품자본이 화폐로 전환]을 매개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이며, 그 화폐자본은 이 일을 상품의 끊임없는 매매를 통해 수행한다. ... 산업자본의 유통과정을 매개하는 이 활동이 상인의 화폐자본의 전문적인 기능이다. 이 기능에 의해 상인은 그의 화폐를 화폐자본으로 전환시키고, 자기의 M을 M—C—M'으로 만들며, 이 동일한 과정에 의해 그는 상품자본을 상품거래자본[상업자본]으로 전환시킨다. (pp. 345-6)

4. 아마포 생산자((산업자본가))가 자기의 아마포가 ... 최종 구매자인 생산적 소비자나 개인적 소비자에게 옮겨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의 재생산과정은 중단될

것이다. 또는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 그는 자기 생산규모를 축소하여, 자기 아마포의 ... 더 큰 부분을 화폐준비금으로 보유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 자본의 일부가 상품으로 시장에 있을 동안 다른 부분은 생산과정을 계속할 수 있으며, 후자가 상품으로 시장에 등장할 때 전자는 다시 화폐형태로 환류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자본의 이런 분할은 상인의 개입에 의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의 개입이 없다면 유통자본 중 화폐준비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부분은 생산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부분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재생산규모는 제한될 것이다. (pp. 346-7)

5. 상업자본이 어떤 필요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 (1) 분업의 결과로, 구매와 판매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본은, 산업자본가가 자기 사업의 상업적 부분 전체를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의 그것보다 작다. (2) 상인은 전문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는 그의 상품이 더 빨리 화폐로 전환될 뿐 아니라 상품자본 그것도 생산자의 수중에 있는 경우보다 더 빨리 탈바꿈을 수행한다. (3) 상업자본 전체를 산업자본과 대비시켜 보면, 상업자본의 1회전은 한 생산분야에 있는 여러 자본들의 회전을 대표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산분야에 있는 여러 자본들의 회전을 대표할 수 있다. (pp. 347-8)

6. 상업자본의 회전은 동등한 크기의 산업자본의 회전 또는 1회의 재생산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여러 자본—동일한 생산분야이든 다른 생산분야이든—의 회전의 총계와 동일하다. 총화폐자본 중 상업자본으로 기능하는 부분은, 상업자본의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작아지고 느리면 느릴수록 커진다. 생산의 발전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업자본의 총액은 유통에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상품총액에 비해 그만큼 더 커지지만, 절대금액에서는 또는 더 발달된 상업자본 총액에 비해서는 그만큼 더 작아진다. 생산의 발전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반대가 된다. 이리하여 생산의 저개발상태에서는 진정한 화폐자본의 더욱 큰 부분이 상인의 수중에 있으며, 상인의 재산은 타인들의 재산과 비교해 더욱 화폐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p. 349)

7. 상인이 투하하는 화폐자본의 유통속도는, (1) 생산과정이 갱신되는 속도와 서로 다른 생산과정들이 결합되는 속도, 그리고 (2) 소비의 속도에 달려 있다. (p. 350) ... 상품거래자본은 ... 생산을 위해 투하된 자본 중 화폐준비금·구매수단으로서 항상 산업자본가의 수중에 존재하여 그의 화폐자본으로서 유통해야만 하는 부분을 축소된 규모에서 대표하고 있다. ... 이 부분은 총자본 중 재생산과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매수단으로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유통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재생산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즉 신용제도가 발달하면 할수록], 총자본에 대한 비율에서는 그만큼 더 작아진다.

(pp. 351-2)

8. 상업자본은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가치도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 상업자본이 유통시간의 단축에 기여하는 한, 상업자본은 산업자본가가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증대에 간접적으로 공헌한다. 상업자본이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고 자본들 사이의 분업을 촉진하며 이리하여 자본으로 하여금 더 큰 규모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한, 상업자본의 기능은 산업자본의 생산성과 축적을 촉진한다. 상업자본이 유통시간을 단축시키는 한, 상업자본은 투하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즉 이윤율—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상업자본이 자본의 더 작은 부분을 화폐자본으로서 유통영역에 처박아 두는 한, 상업자본은 자본 중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증대시킨다. (p. 353)

제17장 상업이윤

- 상업자본은 가치도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생산적 영역에 자본을 투하한 상인(상업자본가)도 자신이 투하한 자본을 보전해야 할 뿐 아니라, 투하자본의 크기에 비례한 평균이윤(상업이윤)을 획득해야 한다. 17장은 이 상업이윤이 어디로부터 나오며, 상업이윤과 상업부문에 투하된 자본의 보전이 평균이윤율과 생산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한다. 상업이윤의 원천은 결국 산업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이므로 상업이윤과 상품거래에 투하된 상인의 자본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총생산가격은 총가치와, 총이윤은 총잉여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9. 상품거래자본은, 이것과 결부될 수 있는 모든 잡다한 기능들[예컨대 보관·발송·운수·분류·소매]을 벗겨버리고 이것의 진정한 기능[판매를 위한 구매]에 국한시킨다면, 가치도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고 다만 그것들의 실현을 매개하며 그와 동시에 상품들의 현실적 교환,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의 상품의 이전, 사회의 물질대사를 매개할 뿐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유통단계도 생산단계와 마찬가지로 재생산과정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자본도 각종의 생산분야에서 기능하는 자본과 마찬가지로 연간 평균이윤을 얻어야만 한다. (p. 355)

10. 상업이윤은 단순한 추가이고, 상품의 가치 이상으로 가격을 명목적으로 인상한 것이라는 것은 겉모양에 불과하다. (p. 355) … 이윤이 상품가격의 명목적 인상에서, 또는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에서 생긴다는 관념은 모두 상업자본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곧 드러난다. 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전제하면, 상업이윤

은 이런 방법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p. 357) ... 비록 상인은 자신의 이윤을 오직 유통에서 ... 그의 구매가격을 넘는 판매가격의 초과분에 의해서만 얻고 있지만, 상인은 상품을 그것의 가치 또는 생산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품을 산업자본가로부터 그것의 가치 또는 생산가격 이하로 구매하였기 때문이다. (p. 359)

11. 상인자본...은 이윤의 생산에는 참가하지 않으면서도 이윤의 분배에는 참가한다. (p. 358) ... 상업자본은 총자본 중 자기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참가한다. (p. 359) ... 평균이윤율은 총이윤 중 상업자본에 돌아갈 부분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 ... 따라서 산업자본가가 산업자본가로서 판매하는 생산가격 또는 가격은 상품의 진정한 생산가격보다 작다. ... 상업자본이 이윤을 실현하는 것은 산업자본에 의해 실현되는 상품가격에는 아직 잉여가치(또는 이윤)의 전부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따름이다. 상인의 판매가격이 자기의 구매가격보다 높은 것은 판매가격이 총가치를 초과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매가격이 총가치 이하이기 때문이다. (p. 360)

12. 이처럼 상업자본은 잉여가치의 생산에는 참가하지 않는데도 잉여가치가 평균이윤으로 균등화하는 것에는 참가한다. (p. 360) ...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산업자본에 대한 상업자본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산업이윤율은 그만큼 더 작아진다. ... (2) 제1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윤율은 항상 현실적 잉여가치율보다 낮게 표현된다. 즉 이윤율은 노동의 착취도를 항상 과소평가한다. ... 이런 차이는 평균이윤율 자체가 상업자본에 돌아가는 몫 때문에 그만큼 더욱 작아지는 한 더 커진다. 이리하여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자본가의 평균이윤율은 이윤율을 실제보다 낮게 표현한다. (p. 361)

13. 기타의 모든 사정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업자본의 상대적 크기는 그것의 회전속도에 반비례하며,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전반적인 활력에 반비례한다. 과학적 분석과정에서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은 산업자본들과 그들 사이의 경쟁에서 출발하여 뒤에 가서 비로소 상업자본의 개입에 의해 정정되고 보충되며 수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역사적 발달과정에서는 사정은 정반대다. 상품의 가격을 다소 그것의 가치에 따라 맨 처음 결정하는 것은 상업자본이고, 일반적 이윤율이 맨 처음 형성되는 곳은 재생산과정을 매개하는 유통영역에서다. 최초에는 상업이윤이 산업이윤을 결정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으로 되고 생산자 자신이 상인으로 될 때 비로소 상업이윤은 총잉여가치 중 상업자본에게 돌아가는 일부로 축소된다. (p. 361)

14. 유통비용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즉 순전히 상인의 업무에서 발생해 상인의 특

수한 유통비용에 속하든, 또는 유통과정 내부에서 수행되는 보충적인 생산과정(예: 발송·운수·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속하든—이런 유통비용은 상인 측에 대하여 [상품구입에 투하되는 화폐자본 이외에] 위와 같은 유통에 필요한 수단들의 구매와 지불에 투하되는 추가자본을 요구한다. … 이런 비용요소가, 순수한 상업적 유통비용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가치에 대해 어떤 실질적 추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목적 가치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상품들의 판매가격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추가자본 전체는, 유동자본이든 고정자본이든,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참가한다. (pp. 362-3)

15. 순수한 상업적 유통비용은 상품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키거나 화폐를 상품으로 전환시켜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기 위하여—필요한 비용이다. 여기에서는 유통과정 중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그리고 상인의 업무와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생산과정은 전적으로 무시된다. … 진정한 도매상업에서는 상업자본은 가장 순수하게 다른 기능들과 거의 혼합되지 않는 채 나타난다. … 우리가 여기에서 고찰하는 비용은 구매와 판매의 비용이다. … 이 비용은 회계·부기·마케팅·통신 등으로 분류된다. 이것들에 필요한 불변자본은 사무실·종이·우편요금 등이고, 기타의 비용은 상업노동자에 투하된 가변자본에 속한다. (p. 363)

16. 모든 이런 비용들은 상품의 사용가치 생산에 드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 실현에 드는 것이며, 따라서 순수유통비용이다. 이 비용들은 직접적 생산과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유통과정에는 들어가며 따라서 재생산의 총과정에 들어간다. … 이 비용들은 생산물이 상품이라는 경제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생긴다. (p. 364)

17. 유통활동이 연장되는데도 직접적 생산과정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규모가 축소되든지 아니면 생산과정이 동일한 규모로 진행될 수 있게 추가적 화폐자본이 투하되어야 한다. 결국 종전의 자본으로는 더 적은 이윤을 얻으며, 종전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 화폐자본이 투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상인이 산업자본가를 대신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상업자본이 그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한, 구별은 다만 다음과 같다. 즉 자본기능의 이런 분할에 의해 유통과정에 전적으로 묶여있는 시간이 더 적어지고 유통과정에 투하되는 추가자본이 더 적어지며, 이리하여 총이윤의 감소분이 이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적어진다는 것이다. (p. 366)

18. 자기 자신이 상인이기도 한 산업자본가가 자기 상품자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본(사무실 비용과 상업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투하했다면, 이 자본은 확실히 추가자본이기는 하지만 잉여가치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자본은 상품의 가치에서 보충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 상품가치의 일부는 이런 유통비용으로

다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적 총자본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는 가치증식과정의 일부가 아닌 부차적 활동을 위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이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p. 367)

19. 이 때문에 개별자본가나 산업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윤율은 저하((한다)). ... 유통업무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이런 추가비용을 상인이 산업자본가 대신 떠맡는다 하더라도, 이윤율의 이런 감소는 여전히 일어날 것인데 다만 그 정도가 작고 그 경로가 다를 뿐이다. 이제 사태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상인은 이런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자본을 투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추가자본에 대한 이윤은 상업이윤 총액을 증가시키므로 더 큰 규모의 상업자본이 산업자본과 함께 평균이윤율의 균등화에 참가하며 따라서 평균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p. 367) ... 그러나 상업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분업은 유통비용의 집중과 이에 따른 감축을 내포하고 있다. (p. 368)

20. 상업노동자의 부분노동은 비록 잉여가치를 창조하지는 않지만, 상업자본가로 하여금 잉여가치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이 자본에 관한 한 상업노동자의 부분노동은 결과적으로 이윤의 원천이다. ... ((산업))노동자의 부분노동이 생산((산업))자본을 위해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노동자의 부분노동은 상업자본을 위해 그 잉여가치의 일정한 몫을 확보해 준다. (p. 370)

21. 상인 사무실의 잘 조직된 분업은 노동시간을 크게 절약하며, 이리하여 도매업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는 결코 영업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 동일한 기능이—대규모로 수행되든 소규모로 수행되든—동일한 노동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산업에서보다 상업에서 훨씬 더 심하다. 이 때문에 집적은 역사적으로 산업의 작업장에서보다 상업에서 더욱 먼저 나타난다. (p. 372)

22. 상업자본은 산업자본의 일부가 자립화한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업자본에 관한 모든 문제는 ... 상업자본에 특유한 현상이 아직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산업자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형태로 ... 제기되어야 한다. ...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노동자의 임금=가변자본))도 먼저 산업자본가 자신의 상업사무실에서 조사되어야만 한다. (p. 376) ... 생산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산업자본의 유통을 위해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할 상업활동들도 증대한다. ... 이리하여 상업노동자들의 고용이 필요하게 되고 그들이 진정한 상업사무실을 구성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지출은 비록 임금형태로 실시되지만, 생산적 노동의 구매에 투하되는 가변자본과는 구별된다. 그 지출은 잉여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 투하해야 할 자본의 양을 증대시킨다. (pp. 376-7)

23. 상업노동자는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노동의 가격은 그의 노동력의 가치[즉 그것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며, 이 노동력의 사용—노동력의 지출·소모—은 기타의 임금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동력의 가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임금은 그의 도움으로 자본가가 실현하는 이윤량과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도 없다. 그가 자본가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과 그가 자본가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다른 크기다. 그가 노동하는 한(그것의 일부는 부불노동이다), 그가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기능이 아니라, 잉여가치의 실현비용을 줄여주는 도움이다. (p. 378)

24. 상업기능과 유통비용은 오직 상업자본과 더불어 자립성을 획득한다. (p. 379) ... 상인들은 유통기능을 떠맡으면서 또한 거기에서 생기는 유통비용도 떠안는다. 산업자본가에게는 유통비용은 비생산적 비용으로 나타나며 또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나 상인에게는 유통비용은 자기 이윤의 원천으로서 나타나며, 이 이윤은 유통비용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상업자본에 관한 한, 유통비용을 위한 지출은 생산적 투자이며, 상업자본이 구매하는 상업노동도 상업자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생산적이다. (p. 380)

제18장 상업자본의 회전. 가격

- 18장은 상업자본의 회전이 가격과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상업자본의 특수한 성격에 의해 그 영향은 산업자본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25. 산업자본의 회전은 생산시간과 유통시간의 통일이며, 따라서 전체 생산과정을 포괄한다. 그러나 상업자본의 회전은 사실상 상품자본의 운동이 자립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품탈바꿈이 제1국면 $C-M$ 을 하나의 특수한 자본의 자기환류운동으로서 표시할 따름이다. ... 유통영역에서는 산업자본의 탈바꿈은 항상 C_1-M-C_2 로 나타난다. ... 이것은 사실상 C_1 과 C_2 의 교환이며, 따라서 동일한 화폐가 두 번 그 소유자를 바꾼다. ... 그러나 상인의 경우에는 $M-C-M'$ 에서 두 번 소유자를 바꾸는 것은 동일한 상품이며, 이 상품은 상인의 화폐가 상인에게 환류하는 것을 매개할 따름이다. (p. 381)

26. ((상업자본의)) 연간 회전수는 이 운동 $M-C-M'$ 이 일년 동안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에 달려 있다. (pp. 381-2) ... 그러나 상업자본의 회전 반복은 구매와 판매의 반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산업자본의 회전 반복은 재생산과정(소비과정을 포함)의 주기성과 갱신을 표현한다. 그런데 산업자본의 회전 반복은 상업자본에게는 외부조건일 뿐이다. (p. 382) ... 상업자본은 생산시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위의 사실은 상업자본의 회전에 대한 첫 번째 제한이다. 그러나 둘째로 재생산적 소비에 의해 형성되는 제한을 무시하면, 상업자본의 회전은 결국 개인적 소비 전체의 속도와 규모에 의해 제한된다. (p. 383)

27. 상업세계 내부의 회전—상인 상호간에 동일한 상품을 매매하는 것은 투기시기에 매우 번창하는 유통형태다—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상업자본은 첫째로 생산자본((산업자본))을 위해 C—M 국면을 단축시킨다. 둘째로 근대적 신용제도에서는 상업자본은 사회의 총화폐자본의 큰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이미 구매한 것을 판매하기 전에 자기의 구매를 되풀이할 수 있다. … 재생산과정의 비상한 탄력성 때문에 상인은 생산 그것의 어떤 제한도 보지 못하거나 매우 탄력적인 제한만을 보게 된다. 이리하여 상품의 성질에서 유래하는 C—M과 M—C의 분리 이외에도 지금 가공적인 수요가 창조된다. (p. 383)

28. 상업자본의 운동은, 이것의 자립화에도 불구하고, 유통영역 안에서 산업자본의 운동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 자립화 때문에 상업자본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재생산과정의 한계들과 독립하여 운동하고, 이리하여 또 이 재생산과정을 그 한계들을 넘어서까지 추진시킨다. 내적인 의존성과 외적인 자립성은 상업자본을 그 내적 관련이 공황에 의해 폭력적으로 회복되는 지점까지 몰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황이 먼저 출현하여 폭발하는 곳은 직접적 소비에 관계하는 소매업이 아니라 도매업과 은행(사회 전체의 화폐자본을 도매업에 사용하도록 한다)의 분야라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pp. 383-4)

29. 어디엔가 보이지 않는 지점에 상품은 판매되지 않은 채로 쌓여 있다. 또는 생산자와 중개상인의 재고가 점차로 과잉이 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는 소비가 일반적으로 왕성한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하나의 산업자본가가 일련의 다른 자본가들을 활동시키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그들에 의해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완전히 고용되어 평소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지출도 자기의 수입과 함께 증가한다. 이밖에도 … 불변자본과 불변자본 사이의 끊임없는 유통이 일어나는데, 이 유통은 개인적 소비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인적 소비와 독립하고 있지만, 결국은 개인적 소비에 의해 제한된다. (p. 384)

30. 그러나 불변자본의 생산도 당분간의 예상수요에 자극되어 아주 평온하게 계속될 수 있으며, 이리하여 이 산업분야에서는 상인도 산업자본가도 경기가 매우 좋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시장에 판매하는 상인들(또는 국내에 재고를 쌓아둔 상인들)의 자금회수가 너무 느리고 소규모여서 은행이 대출의 상황을 촉구하자마자, 또는 구매한 상품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는데 그 상품을 근거로 발행된 어음이 지불만기가 되자마자, 공황이 일어난다. 이때 투매가 시작되고 채무상환을 위한 판매가 시작된

다. 이제 파국이 오며, 이것은 겉모양의 번영을 갑자기 중단시켜 버린다. (pp. 384-5)

31. 상업자본의 회전의 피상적이고 불합리한 성질은, 동일한 상업자본의 회전이 다수의 생산자본((산업자본))들의 회전을 동시에 또는 차례차례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p. 385) ... 생산가격의 높고 낮음은 이윤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상품의 판매가격 중 상업이윤으로 돌아가는 일정한 부분, 또는 상인이 일정량의 상품(생산물)에 첨가하는 가격추가가 얼마나 큰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품의 생산가격이 낮으면, 상인이 일정량의 상품의 구매가격으로 투하하는 총액은 적을 것이고, 주어진 이윤율에서는 상인이 이 값싼 상품의 일정량에서 얻는 이윤량도 적을 것이다. 또는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상인은 ... 주어진 자본으로 이 값싼 상품을 대량 구매할 수 있으며, 그가 ... 얻는 총이윤은 이 상품량의 하나하나에 조금씩 분산된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된다. (pp. 385-6)

32. 상품의 생산가격은 상인이 거래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자본의 생산성이 높든가 낮은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 상인이 독점상인임과 동시에 생산도 독점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 개별상품에 작은 이윤을 붙여 많은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상품에 큰 이윤을 붙여 적은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는 상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는 엉터리에 지나지 않는다. 상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두 개의 제한은, 한편에서는 상품의 생산가격—이것에 대해 상인은 어떤 통제력도 없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균이윤율—이것에 대해서도 상인은 어떤 통제력도 없다—이다. ... 그러므로 상인의 태도는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 정도에 의존하는 것이며 상인 자신의 의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p. 386)

33. 위에서 언급한 통속적인 편견은, 이윤 등에 관한 그릇된 견해와 마찬가지로, 상인적 선입견 또는 상업만을 관찰하는 것에서 생기는데, 다음과 같은 [상인들 상호간의 경쟁에 관한] 사정들은 그런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로, 경쟁의 현상들인데, 이 현상들은 사실상 상업이윤이 개별상인들 사이에 분할되는 것과 관련을 가질 뿐이다. ... 셋째로, 생산가격이 노동생산성 증가의 결과로 하락하고 이에 따라 판매가격도 하락한다면, 때때로 수요는 공급보다 더욱 빨리 증가하여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이리하여 판매가격은 평균이윤 이상의 이윤을 올리게 된다. 넷째로, 상인이 자기의 사업에서 더 큰 자본을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다. (p. 387) ... 상인의 판매가격에 관한 한, 생산가격은 외부에서 주어진 전제다. (p. 388)

34. 산업자본의 회전에서 하나하나의 국면은 독립적인 상업자본 또는 그 일부의 완전한 회전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윤과 가격의 결정에 대한 회전의 관계도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은 다르다. 산업자본의 경우에는, 회전은 한편에서는 재생산의 주기성을 표현하며, ... 다른 한편에서는 유통시간이 ... 생산과정의 규모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가치와 잉여가치의 창조를 다소 제한한다. 이리하여 회전은 연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을,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을 결정하는 요소[공정적 요소가 아니라 제한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이와는 반대로 상업자본의 경우에는 평균이윤율은 하나의 주어진 크기다. (p. 389)

35. 총상업자본의 회전수가 크면 클수록, 연간에 생산되는 이윤량(또는 잉여가치량)은 그만큼 더욱 커지며, 따라서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이윤율도 그만큼 더욱 상승한다. 그러나 상업자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상업자본에게는 이윤율은 주어진 크기인데, 그 크기는 한편에서는 산업자본이 생산하는 이윤량에 의해 규정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총상업자본의 상대적 크기—즉 총자본 중 총상업자본이 차지하는 양적 비율—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총상업자본의 회전수는 총자본에 대한 총상업자본의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필요한 상업자본의 절대량과 그것의 회전속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pp. 389-390) ... 상업자본의 평균회전시간을 단축시키는 사정들—예컨대 운수수단의 발달—은 동등한 비율로 상업자본의 절대량을 감축시키며, 이리하여 일반적 이윤율을 상승시킨다. (p. 390)

36.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그 이전의 상태에 비교하면 상업자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동일한 상품량이 현실로 기능하는 더 적은 양의 상업자본에 의해 유통되고 있으며, 상업자본의 더 급속한 회전과 이것의 근거인 재생산과정의 더 빠른 속도 때문에 산업자본에 대한 상업자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과 함께 모든 생산이 상품생산이 되고, 이리하여 생산물 전체가 유통담당자의 수중으로 들어온다. (pp. 390-1)

37. 따라서 이전의 생산양식에서는 상업자본은 자기가 회전시키는 상품자본에 비해 더 크다고 하더라도: (1) 상업자본은 절대량에서는 더욱 작다. 왜냐하면 총생산물 중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부분이 ... 상품자본으로 유통하기 때문이다. ... (2)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더 큰 상품량이 생산될 뿐 아니라, 동일한 양의 생산물이 더 큰 양의 상품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상업자본의 양이 증가할 뿐 아니라 유통[예컨대 해운·철도·전신 따위]에 투하되는 모든 자본이 또한 증가한다. (3)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라, 그리고 소매상업에 진입하는 것이 쉬워짐에 따라, 그리고 투기의 발달과 유흥자본의 과잉에 따라, 기능하지 않는 상업자본 또는 부분적으로만 기능하는 상업자본이 증가한다. (pp. 391-2)

38. 총자본에 비한 상업자본의 상대적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각종의 상업분야들 사이의 회전의 차이는 상업자본의 몫으로 돌아오는 총이윤의 크기에도, 일반적 이윤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인의 이윤은, 자기가 회전시키는 상품자본량에 의

해서가 아니라 이 회전을 매개하기 위해 자기가 투하하는 화폐자본량에 의해 결정된다. ... 그러므로 각종 상업분야에서 상업자본의 회전수는 상품의 상업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인이 가격에 추가하는 것의 크기—즉 주어진 자본의 상업이윤 중 개별상품의 생산가격에 할당하는 부분의 크기—는 각각의 상업분야에 있는 상업자본의 회전수 또는 회전속도에 반비례한다. (p. 392)

39. 따라서 서로 다른 상업분야에서 상업이윤율은 같다 하더라도, 상품가치에 대한 상품 판매가격의 비율은 다를 뿐 아니라 각각의 상업자본의 회전시간에 정비례하여 높아진다. 이와는 반대로, 산업자본의 경우 회전시간은 생산되는 개별상품의 가치 크기에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 393) ... 그러나 상업자본의 회전이 상업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항목들에 대한 깊은 분석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이 순전히 자의적인 결정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만들어낸다. 특히 회전의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마치 유통과정 그것이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생산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재생산의 총과정에 관한 모든 피상적이고 전도된 견해는 상업자본의 고찰에서 나오며, 상업자본의 독특한 운동이 유통담당자의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관념에서 생긴다. (pp. 393-4)

40.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진정한 내적 관련들의 분석은 매우 복잡한 일이고 매우 힘든 일이다. ... 그러나 눈에 보이는 단순히 현상적인 운동을 진정한 내적 운동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과학의 임무의 하나다.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유통의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생산의 법칙에 관한 다음과 같은 관념—즉 생산의 진정한 법칙들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관념이며, 겉모양의 운동이 의식에 표현된 것에 불과한 관념—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상인·주식거래인·은행가의 관념은 필연적으로 완전히 전도되어 있다. 제조업자의 관념은 유통행위와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에 의해 왜곡된다. 경쟁도 필연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된 기능을 수행한다. ... 경쟁은 기껏해야 일반적 이윤율을 하나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수준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결코 경쟁 안에는 없다. (p. 394)

41. 상업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회전 그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산업자본의 회전속도는, 주어진 자본으로 하여금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노동을 착취할 수 있게 해주는 한, 이윤량 그리고 일반적 이윤율에 대하여 규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업자본에게는 이윤율은 외부에서 주어지며 이 이윤율과 잉여가치의 형성 사이의 내적 관련은 완전히 소멸되어 있다. ... 서로 다른 상업분야에서 다른 회전시간은 다음과 같은 법칙—즉 일정한 상품자본의 1회전에서 얻는 이윤은 이 상품자본을 회전시키는 화폐자본의 회전수에 반비례한다—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p. 395)

42. 각각의 상업분야에 있는 상업자본의 회전에 관한 이 법칙은 그 분야에 투하된 상업자본 전체의 평균회전에만 타당하다. ... ((서로)) 다른 자본들의 회전수가 평균보다 적든가 많음으로써, 이 분야에 투하된 상업자본 전체의 회전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회전수가 평균보다 많은 것은 개개의 상인 또는 소매상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 경우 그는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산업자본가가 평균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하는 경우 초과이윤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 ... 더 빠른 회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예컨대 상점의 위치—이라면, 그는 이 조건에 대해 특별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며, 다시 말해 그의 초과이윤의 일부가 지대로 전환될 것이다. (pp. 395-6)

제19장 화폐거래자본

- 19장은 신용을 배제한 순수기술적 형태의 화폐거래자본을 다루고 있다. 신용제도와 이자 낚는 자본(은행자본은 화폐거래자본과 이자 낚는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제5편에서 이루어진다.

43.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의 유통과정에서 화폐가 수행하는 순수기술적 운동이 [이 운동을 그리고 오직 이 운동만을 자기의 독특한 활동으로 담당하는] 어떤 특수한 자본의 기능으로 자립하면, 이 자본은 화폐거래자본으로 전환된다. ... 총자본의 일정한 부분이 화폐자본의 형태로 분리되어 자립하는데, 이 부분의 자본주의적 기능은 오직 이런 기술적 활동을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 계급 전체를 위해서 수행한다는 점에 있다. ... 이 화폐자본의 운동도 재생산과정 중에 있는 산업자본의 자립화한 일부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p. 397)

44. 동일한 자본이 생산과정의 연속성 때문에 끊임없이 구매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판매하며, 따라서 동일한 자본이 끊임없이 두 개의 국면(M—C와 C—M)에 동시에 존재한다. ... 자본가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폐를 지불해야 하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화폐를 지불받아야 한다. 화폐지불과 화폐수납이라는 단순히 기술적인 활동이 그 자체 노동이며, 이 노동은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차액계산과 결제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 노동은 하나의 유통비용이며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은 아니다. 이 노동은 특수한 대리인 또는 자본가에 의해 자본가계급 전체를 위해 수행됨으로써 단축된다. (p. 398)

45. 자본의 일정한 부분은 항상 퇴장화폐, 잠재적 화폐자본—구매수단과 지불수단의 준비금, 사용을 기다리는 화폐형태의 유휴자본—으로 존재해야 하며, 또 자본의 일부는 끊임없이 이 형태로 환류한다. 화폐수납, 화폐지불, 부기 이외에도 퇴장화폐의

보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특수한 활동이다. ... 자본기능 그것과 분리된 [화폐로 있는] 자본부분의 이런 끊임없는 운동, 이 순수기술적인 활동이 특수한 노동과 비용—유통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pp. 398-9)

46. 자본의 기능들에 의해 필요하게 된 이런 기술적 활동들이, 가능한 한, 자본가계급 전체를 위해 특수한 부류의 대리인 또는 자본가에 의해 전문적인 기능으로서 수행되며 그리고 그들의 수중에 집중된다는 것은, 분업의 발달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상업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의 의미에서 분업이 있다. 그것은 특수한 사업으로 되며, 계급 전체의 화폐적 기구를 위해 수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중되며 대규모로 운영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특수한 사업 안에서도 분업이 전개된다. ... 화폐의 지불과 수납, 차액의 결제, 당좌계정의 운영, 화폐의 보관 따위가 이런 기술적 활동을 필요하게 하는 행위로부터 분리되어 자립할 때, 이런 활동에 투하되는 자본은 화폐거래자본이 된다. (p. 399)

47. 이미 ... 지적인 바와 같이, 화폐 일반은 서로 다른 공동체들 사이의 생산물 교환에서 최초로 발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거래업—화폐상품을 취급하는 상업—도 먼저 국제무역에서 발달한다. ... 여기에서 환전업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근대적 화폐거래업의 자연발생적 기초의 하나로 여겨야 한다. (pp. 399-400) ... 상품으로서 금은(사치품 생산을 위한 원료)의 거래는 지금((금덩이))거래업—세계화폐로서 화폐의 기능들을 중개하는 상업—의 자연발생적 기초를 형성한다. ... 이처럼 환전업과 지금거래업은 화폐거래업의 시초 형태며 화폐의 이중의 기능—국민적 주화로서 기능과 세계화폐로서 기능—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p. 401)

48.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는 상업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생긴다. 첫째로, 퇴장화폐로서 화폐의 축적, 즉 오늘날에는 자본 중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의 준비금으로 항상 화폐형태로 존재해야 하는 부분의 축적. 이것은 퇴장화폐의 제1형태다. ... 퇴장화폐의 제2형태는 당분간 운용되지 않고 있는 화폐형태의 유희자본인데, 새로 축적되었으나 아직 투하되지 않은 화폐자본도 여기에 속한다. 이런 퇴장화폐의 형성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주로 퇴장화폐의 보관이나 부기 따위다. 둘째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과 상업 일반은 구매에서 화폐지불, 판매에서 화폐수납, 채무의 상환과 채권의 회수, 지불들의 결제 따위와 결부되어 있다. 모든 이런 서비스를 화폐거래업자는 먼저 상인들과 산업자본가들의 단순한 현금출납인으로서 수행한다. (pp. 401-2)

49. 화폐거래업은, 비록 그 시초단계에서라도, 그것의 원래의 기능에 대부·차입의 기능과 신용거래가 결부되면, 충분히 발달하게 된다. (p. 403) ... 화폐거래업이 매개하는 것은 화폐유통의 기술적 조작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조작을 화폐거래업이 집

중하고 단축하고 단순화시킨다. 화폐거래업은 퇴장화폐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퇴장화폐의 형성이 자발적인 한, 퇴장화폐를 그 경제적 최소한도로 축소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한다. ... 화폐거래업은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거래업이 귀금속을 구매한 뒤에 그것의 분배를 매개할 따름이다. 화폐거래업은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차액결제를 쉽게 하며, 이 결제의 인위적 메커니즘에 의하여 결제에 필요한 화폐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화폐거래업은 이런 상호간 지불들의 관련이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 따라서 여기에서 고찰하는 순수한 형태의 화폐거래업—즉 신용제도와는 분리된 화폐거래업—은 상품유통의 하나의 계기인 화폐유통의 기술적 측면과, 이 화폐유통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화폐기능에 관련하고 있을 뿐이다. (pp. 404-5)

50.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가 화폐자본을 이 기술적 매개에 투하한다면 여기에서도 $M-M'$ 이라는 자본의 일반공식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M 과 M' 사이의 매개는 탈바꿈의 소재적 측면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탈바꿈의 기술적 측면만을 내포한다. (p. 405) ... 화폐거래업자가 취급하는 화폐자본의 양은 상인과 산업자본가가 유통시키는 화폐자본과 동등하다는 것, 그리고 화폐거래업자가 수행하는 활동은 상인과 산업자본가의 활동을 매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또 화폐거래업자의 이윤은 잉여가치에서 빼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화폐거래업자는 이미 실현된 가치를 취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p. 406)

제20장 상인자본의 역사적 고찰

- 20장은 상인자본의 유래와 한때 지배적인 자본이었던 상인자본이 어떻게 산업자본을 위해 봉사하는 자본의 일 분파로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이후 제5편과 제6편의 마지막 장들(36장과 47장)에서도 각각 이자냥은 자본과 지대에 관한 역사적 내용이 다루어진다.

51. 상인자본은 ... 산업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더욱 불합리한 것은 없다. (p. 407) ...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키는 두 가지 이유가 속류경제학자의 경우에는 더 있다. 첫째는 상업이윤과 그것의 특성을 설명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것은 상품유통, 따라서 화폐유통을 그 기초로 전제한다)이라는 특수한 형태에서 생기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라는 형태를, 그리고 더욱 나아가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이라는 형태를, 생산과정 그것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형태로 도출하려는 속류경제학자들의 변호론적 노력 때문이다. (p. 408)

52. 상업만이 아니라 상인자본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보다 오래된 것이며, 상인자본은 사실상 자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 가장 오래된 역사적 형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거래업과 이것에 투하된 자본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상업의 존재, 나아가 상품거래자본의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해야 할 것은 오직 상품거래자본뿐이다. 상업자본은 유통영역에 묶여 있으며 또 그것의 기능은 오로지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화폐의 단순한 유통에 필요한 조건들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pp. 409-10)

53. 유통하는 생산물이 어떤 생산양식에서 생산되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산물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으며, 그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유통과정과 이것에 따른 형태변화를 통과해야만 한다. 상업자본에 의해 매개되는 두 끝은 상업자본에 대해서는 주어져 있는데, ... 오직 필요한 조건은 이 두 끝이 상품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상업자본은 자기에게 주어진 전제조건인 이 두 끝—즉 상품들—의 운동을 매개할 따름이다. (p. 410)

54. 생산물이 상업에 들어가서 상인의 수중을 거치는 범위는 생산양식에 따라 다른데, 그 범위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완전히 발달할 때 최대한도에 도달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산양식에서도 상업은 교환에 들어가는 잉여생산물의 생산을 촉진하며 따라서 상업은 생산에 점점 더 교환가치를 위한 생산이라는 성격을 부여한다. (p. 410) ... 그러나 생산영역들의 사회적 조직이 어떻든, 상인의 재산은 항상 화폐재산으로 존재하며 그의 화폐는 항상 자본으로 기능한다. ... 생산이 덜 발달하면 할수록, 화폐재산은 그만큼 더욱 상인의 수중에 집중하여 상인재산의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p. 411)

55.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는 상업자본은 하나의 특수한 기능을 하는 자본으로 나타날 따름이다. 그러나 이전의 모든 생산양식에서는 상업자본은 자본의 기능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생산이 직접적으로 생산자의 생활수단을 위한 생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본이 생산 그것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기 훨씬 전에 ... 상업자본은 자본의 역사적 형태로 나타난다. (pp. 411-2)

56. 상업자본의 존재와 그것의 일정한 정도까지의 발달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을 위한 역사적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 그것은 화폐재산의 집적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며, (2)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상업을 위한 생산—개별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 판매를 위한 생산—을 전제하며, 따라서 상인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업자본의 발달은 생산에 점점 더 교환가치를 위한 생산이라는 성격을 부여하며 생산물을 점점 더 상품으로 전환시킨다. 그렇지

만 상업자본의 발달은 그것만으로는 하나의 생산양식에서 다른 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p. 412)

57.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 안에서는 상업자본은 이전의 독립적 존재에서 격하되어 자본투하 일반의 하나의 특수한 계기로 되며, 이윤의 균등화는 상업자본의 이윤율을 일반적 평균수준으로 저하시킨다. ... 그와는 반대로 상업자본이 우세한 곳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상태가 지배한다. (p. 412) ... 자본이 상업자본의 형태로 독립적으로 우세하게 발달한다는 것은 생산이 자본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즉 자본과는 무관한 사회적 생산형태 위에서 자본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러므로 상업자본의 독립적인 발달은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적 발달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p. 413)

58. 상업자본의 독립적 발달이 자본주의적 발달 수준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베네치아 사람, 제노바 사람, 네덜란드 사람 따위에 의해 수행된 중개무역의 역사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윤이 ... 상업적으로 (그리고 경제 일반에서) 미발달한 공동체들 사이의 생산물 교환을 매개함으로써, 그리고 쌍방의 생산국들을 수탈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 중개무역은 상업자본이 형성되는 주요한 원천의 하나다. 그러나 중개무역의 이런 독점과 상업 그것은 이 독점에 의해 수탈당하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쇠퇴해 간다. 중개무역의 경우 이 쇠퇴는 상업의 한 특수한 분야의 쇠퇴로 나타날 뿐 아니라, 순수한 상업국민들의 지배력의 쇠퇴와 그들의 상업적 부 일반의 쇠퇴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점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pp. 414-5)

59. 자본주의 이전 단계들의 사회에서는 상업이 산업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는 그 반대다. 공동체 상호간에 행해지는 상업은 당연히 크든 적든 공동체에 반작용을 미친다. 상업은 향락과 생활유지가 생산물의 직접적 사용보다는 판매에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들어, 생산을 점점 더 교환가치의 생산에 종속시킨다. 이리하여 상업은 낡은 관계를 해체하고 화폐유통을 증가시킨다. 상업은 이제 더 이상 생산의 잉여분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그것에 점차로 파고 들어가서 생산분야 전체를 자기에 의존시킨다. 그러나 이런 분해작용은 생산을 행하는 공동체의 성격에 크게 좌우된다. (p. 416) ... 전자본주의적 국민적 생산양식의 내부적 견고성과 조직이 상업의 분해작용에 대항해 내세운 장애물들은 인도와 중국에 대한 영국의 무역에서 매우 잘 드러나고 있다. (p. 420)

60. 상업자본이 저개발 공동체들 사이의 생산물 교환을 매개하는 한, 상업이윤은 사기와 기만의 형태를 띠 뿐 아니라 사실상 주로 이것으로부터 발생한다. (p. 416) ...

이런 발달하지 않은 생산양식에서는 상업자본이 잉여생산물의 대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취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 공동체들에서 생산을 아직도 기본적으로 사용가치의 생산을 지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물 중 유통에 들어가는 부분의 판매, 그리고 생산물을 그 가치대로 판매한다는 것은 이들 경제조직에서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상업자본이 이런 공동체들 사이의 중개자 구실을 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이런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식에서는 잉여생산물의 주요한 소유자들, 즉 노예소유주·봉건영주·국가는 향락적 부의 대표자들인데, 이 향락적 부에 대해 상인이 덮을 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상업자본은, 그것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어느 곳에서나, 약탈제도를 대표하게 되는데 사실상 상업자본의 발달은 고대·근대의 상업민족의 경우 폭력적 약탈·해적·노예납치·식민지 정복 등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pp. 417-8)

61. 상업과 상업자본의 발달은 어디에서나 교환가치를 지향하는 생산을 발달시키고 그것의 범위를 확대하며 그것을 다양화함과 함께 그것에 세계적 성격을 부여하여 화폐를 세계화폐로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상업은 어디에서나 기존의 생산조직들을 많은 적든 분해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상업이 낡은 생산양식을 해체시키는가는 먼저 낡은 생산양식 그것의 견고성과 내부구성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해체과정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는 상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낡은 생산양식 그것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고대세계에서는 상업의 영향과 상업자본의 발달은 항상 노예경제를 낳았으며, 출발점 여하에 따라서는 생활수단의 직접적 생산을 지향하는 가부장적 노예제도가 잉여가치의 생산을 지향하는 노예제도로 전환되는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근대세계에서는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낳는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결과 그것은 상업자본의 발달과는 전혀 다른 사정들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p. 418-9)

62. 16세기와 17세기에 지리상의 발견들과 함께 상업에서 일어난 대혁명들이 봉건적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이행을 촉진한 하나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 전적으로 그릇된 견해들을 낳았다. 세계시장의 갑작스런 확대, 유통하는 상품들의 비상한 증대, 아시아의 생산물과 아메리카의 금은을 획득하려는 유럽 각국 사이의 경쟁, 식민제도 따위, 이 모든 것은 생산에 대한 봉건적 족쇄들을 타파하는 데 근본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근대적 생산양식의 제1시기인 매뉴팩처 시대는 이것을 위한 조건들이 이미 중세에 창조되어 있었던 곳에서만 발달하였다. (p. 419)

63. 16세기와 부분적으로는 17세기에다 상업의 갑작스런 확대와 새로운 세계시장의 창조가 낡은 생산양식의 몰락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상업의 확대와 새로운 세계시장의 창조는 거꾸로, 이미 있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기초로 달성된 것이다. 세계시장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를 이룬다. 다른 한편으로, 점점 더 큰 규모로 생산하려는 이 생산양식의 내재적 필연성은 세계시장의 끊임없는 확대를 강요하게 되며, 이리하여 상업이 산업을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끊임없이 상업을 변혁시키게 된다. 더욱이 상업상 지배권도 이제는 대공업을 위한 조건들의 크거나 작은 우세와 결부된다. 예컨대 영국과 네덜란드를 비교해 보라. 지배적 상업국으로서 네덜란드의 몰락사는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되어 가는 역사다. (pp. 419-20)

64. 봉건적 생산양식으로부터 이행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생산자가 상인 겸 자본가가 되어 농촌의 자연경제에 대항하고 중세도시의 길드에 묶인 수공업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길이다. 다른 하나의 길은 상인이 생산을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다. 후자의 길이 역사적으로 디딤돌의 기능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후자의 길은 그 자체로서는 낡은 생산양식을 타도할 수 없고 오히려 낡은 생산양식을 자기 자신의 전제조건으로 보존하고 유지한다. (p. 421) ... 이런 방식은 어디에서나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진보를 방해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함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 이런 방식은 생산양식을 변혁함이 없이 직접적 생산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킬 따름이며, 그들을 자본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보다 나쁜 조건의 단순한 임금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트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잉여노동을 낡은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 취득한다. (p. 422)

65. 따라서 자본주의로 이행은 세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첫째, 상인이 직접적으로 산업가로 된다. 이것은 상업에 기초를 둔 공업의 경우로 특히 상인이 원료와 노동자 모두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치품공업에서 그렇다. 둘째, 상인이 작은 장인들을 자기의 중개자로 삼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독립적 생산자로부터 구매한다. 상인은 생산자를 명목상으로는 독립시켜 놓고 그의 생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셋째, 산업가가 상인으로 되어 시장을 위해 직접적으로 대규모로 생산한다. (p. 423)

66. 처음에는 상업은 길드공업·농촌가내공업·봉건적 농업을 자본주의적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상업은 생산물을 상품으로 발전시킨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상업이 생산물을 위한 시장을 창조함으로써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상품등가물을 도입하고 생산을 위해 새로운 원료와 보조재료를 공급하며, 이리하여 처음부터 상업에 근거하는 새로운 생산분야들[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을 위해 생산할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유래하는 새로운 생산분야들]을 개척함으로써이다. (p. 424)

67. 매뉴팩처가 어느 정도 강화되면[대공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지만], 제조업이 자기의 상품을 통해 시장을 정복함으로써 자기를 위한 시장을 창출한다. 상업은 이제 산업생산의 하수인으로 되며, 시장의 끊임없는 확장은 산업생산의 생존조건이 하나가 된다. 점점 증대하는 대량생산은 기존의 시장을 범람시키고, 이리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확장시키려고 하며 그것의 장벽들을 돌파하려고 한다. 이 대량생산을 제한하는 것은 상업(이것이 현재의 수요를 표현할 뿐인 한)이 아니라 기능하는 자본의 규모와 노동생산력의 발전 정도다. 산업자본가는 끊임없이 세계시장에 직면하며, 그는 자기 자신의 비용가격을 국내의 시장가격과 비교할 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시장가격과 비교해야만 한다. 이전에는 이 비교는 거의 전적으로 상인들의 업무였으며, 이리하여 상업자본은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를 확보했던 것이다. (p. 424)

68. 근대적 생산양식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연구인 중상주의는 필연적으로 상업자본의 운동에서 자립화하고 있는 유통과정의 피상적인 현상들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때문에 겉모양만 파악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상업자본이 자본 일반의 최초의 독립적인 존재형태이기 때문이었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상업자본이 봉건적 생산의 최초의 변혁기, 근대적 생산의 발생기에 미친 압도적인 영향 때문이었다. 근대경제에 대한 진정한 과학은 이론적 고찰이 유통과정에서 생산과정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시작된다. (pp. 424-5)